

현실역동 집단상담: 우리문화의 관점에서*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집단상담은 '집단'이라는 구성조건으로 인해 사람들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집단상담에서는 대인관계 학습과 관찰학습이라는 강력한 치료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신 내적 요인보다는 관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직적 집단주의 사회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론적 인간관을 중심으로 인정과 위계를 강조하는 문화를 발달시켰다. 이러한 문화요인을 반영하는 현실역동 집단상담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고, 신속한 태도변화를 위해 직면기법을 활용하고, 나아가 업무자모와 같은 어른으로서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집단원이 삶의 주인으로서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합당한 역할 즉, 도리를 다하며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현실역동 집단상담의 관점이다. 이러한 현실역동 집단상담이 기존의 다른 집단상담과의 차이점은 상담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해주고, 또 그러한 방안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현실역동 집단상담

* 본 연구는 200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 : 장 성 숙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e-mail: changss312@hanmail.net

집단상담의 이론적 근거는 개인상담을 모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단상담 실시자들은 자신들이 기초하고 있는 개인상담 이론의 인간관, 목표, 주요절차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상담 모형으로 제안한 현실역동 상담이론(장성숙, 2000)에 기초해 현실역동 집단상담 접근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문화의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집단상담 모형으로 현실역동 집단상담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단상담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집단상담에서는 과연 어떤 목표들이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집단상담을 실시하려면 집단상담에서 어떠한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현실역동 집단상담의 정의와 특성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이 집단상담 모형에서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상담자는 과연 어떠한 한국적 문화와 가치를 지닐 때 효율적인 상담효과를 내는지 실례를 통해 살펴본다.

집단상담의 추세

북미에서는 1960~1970년대에 집단에 대한 열기가 정점을 이루어 그에 대한 연구논문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고원 상태를 이루다 1990년대에 이르러 그 열기가 다시 부활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부활은 집단상담이 태도변화를 일으키는데 개인상담보다 효율적 일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Sleek, 1995).

집단상담이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해독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문명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을 한껏 구가하는 서양사회에 왜 다른 지역에서보다 소외, 방황, 절망 등의 심리적 병폐가 만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서구 사회가 인간을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호 의존적 존재로가 아니라, 상호 독립적이고 분리된 존재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독립적인 개체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우월과 열등의 대립구도 속에서 사람들은 황폐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 여긴다.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자신의 성취나 만족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배제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풍토아래 이혼 증가로 인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폭력 및 마약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자 1990년대에 이르러 심리학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상담 및 임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솔직하라는 미명아래 상담에서 이혼을 은근히 부추김으로써 미국 사회의 큰 병폐인 청소년들의 탈선에 일조했다는 반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양의 결혼관 내지는 가족형태에 뒤늦게나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동양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대국의 문화를 동경했다면, 지금은 서양의 문화를 다투어 흡수하듯 결혼관 내지는 인간관에 있어서 서양인을 추종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유부녀들도 이성 친구를 두는 유행에 휩쓸렸는데, 이러한 풍조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개인주의적 자의식이 가세되면서부터 더욱 확산되

었다고 본다. 그런데 내 인생을 산다는 것에서의 '나'에 대한 강조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를 강조하는 우리사회에서 특히, 상담영역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담계에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초반에 T-그룹 또는 참담남 수련(Encounter Group)이 보급되면서부터 일어났다. 대학에서보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비교적 먼저 소개된 이러한 집단훈련은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에 와서는 대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훈련형태의 이러한 성장집단(Growth Group)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고, 그것은 상담에 대한 교육을 보편화시켰다. 그리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집단상담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마다 자원봉사 단체가 설립되어 청소년의 인성교육으로 심성수련을 실시하고, 교원이나 사원들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에도 축소형태이긴 하지만 인간관계 훈련이 곧 잘 애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집단상담에 대한 시각

도처에서 상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교육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상담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게 생겨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담이 개개인을 정립시켜 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한편, 일

부에서는 감정적 이완 정도나 돕는 것으로 여성적 취향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시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가 상담에 대한 양적인 확산이 이루어진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질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집단상담에 대한 경시풍조를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상담이 감정적 차원의 놀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갈등이나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리라 본다.

집단상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묶어 본다.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집단상담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수용적이거나 늘 어지도록 방임하는 데에 연유하지 않았을까 한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 일단은 이해하고 공감하려 하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서 지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 분위기에 탐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집단상담 중독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집단상담 환경은 일종의 파라다이스를 연상케 할 정도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 받고 공감 받는 집단 분위기에 익숙해져 오히려 사회에 대하여 더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집단상담에서는 자신의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 양상을 자각하게 해 자기에 대한 점점 및 새로운 적용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리하여 마냥 지지적인 공감보다는 솔직한 지적이나 평가가 집단상담의 묘미를 더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솔직한 반응이야말로 바깥 사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래서 더 할 나위 없이 사람들의 소중한 진실인 것이다.

집단상담에 대한 냉소적 시각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실시의 편이성 때문에 집단상담의 활동을 지나치게 구조화시켜 보급했다는 점에

귀인 시켜볼 수 있다. 집단과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화 활동은 집단원들의 상호작용을 신속하게 활성화시키는데 유용하다. 특히, 소극적인 집단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활동은 1950년대 T-그룹에서 조금씩 사용된 이래 1960~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형태주의 치료에 의해 그 사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중·고등학생들이 비구조화 작업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구조화 활동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심성훈련이라는 구조화 활동은 정확한 지도방안만 있으면 쉽게 실시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도 집단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점 아래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빠르게 확산된 속도만큼 사람들에게 집단활동이 자기표현 훈련 정도로만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요즈음에도 구조화 활동이 여전히 선호된다고는 하지만 (권경인, 2001), 필자의 견해로는 집단상담이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폭 넓게 다루어 내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비구조화 활동이 훨씬 적합하다고 본다. 집단상담에서 논의되는 소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때 집단활동은 그야말로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장이 되기 때문이다.

집단상담이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세 번째 이유로, 집단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상담자들의 무지에 기인한 태도 때문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상담기관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단상담을 개인상담보다 선호한다. 실적 면에서나 수익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갓 입사한 초보 상담원에게도 무조건 집단상담을 떠맡기듯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집단상담을 개인상담보다 쉬운 것으로 안이하게 여기는 태

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상담원들도 집단상담을 그저 교통정리나 하듯 좀 거들면 어떻게든 굴러가게 마련이라고 여기며 동조하는 듯 하니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집단상담은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역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빚어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상담자는 면접기술뿐만 아니라 집단을 다룰 수 있는 운영능력도 지니고 있어야 집단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가 있다.

어쨌든 집단상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극복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담의 전문성이 지켜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집단상담에서는 지나치게 지지적 이거나 공감적인 분위기보다 담백하고 솔직한 집단 분위기를 창출하고, 지나친 구조화 활동으로 점점 기계화되어가고 있는 흐름에서도 벗어나 상담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또 집단상담자는 보다 신중하고 전문가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리라 본다.

집단상담의 목표

사람들은 집단활동이 집단훈련인지 집단상담인지 또는 집단치료인지에 대하여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모호하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집단훈련은 교육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집단상담은 대인관계의 갈등에 대한 해결능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단치료는 심리장애자들의 증상을 교정시키는 것에 그 비중을 두고자 한다. 집단활동의 성질을 대체로 이렇게 분류하긴 하지만 사실 모두가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각 유형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거의 유사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활동 유형에 참석하느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실시하는 집단활동에 참석하느냐하는 것이다. 즉, 집단상담자가 어떠한 상담관 내지는 사회관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 및 상담결과는 달라진다.

집단상담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차이를 간략히 대비시켜 보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집단상담의 속성이 일목요연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개인상담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내적 세계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집단상담에서는 초점이 외부 세계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주로 주어진다. 둘째, 개인상담에서는 자신의 약점에 해당되는 비밀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반면, 집단상담에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맹점 영역을 자각시키는 것에 역점을 둔다. 셋째, 개인상담에서는 문제의 내용이 내담자의 보고에 의해 설정되는 반면, 집단상담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에 따라 설정된다. 넷째, 개인상담에서의 인간관계는 1 : 1의 단일관계로 단면적이지만, 집단상담에서의 관계는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다양한 모습을 재연해 보여주는 복합적 관계다. 다섯째, 개인상담에서의 상담기간은 개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될 수 있지만, 집단상담에서의 상담기간은 시간 제약 받는 한정적 접근이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이렇게 개인상담과 차이가 나는 집단상담의 속성은,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표출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적응적 행동기제를 집단 내에서 발달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집단상담 접근에서는 이러한 집단

상담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부각시키기보다 여전히 개인상담에서처럼 개인 내적 요인에 역점을 두면서 그 이상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대인관계 학습이나 관찰학습과 같은 독특한 치료요인을 집단이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적어도 집단상담자라면 모처럼 구성된 집단이라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즉, 다른 대부분의 기존 집단상담에서는 자각, 정화, 통찰 등과 같은 요인들을 여전히 강조하며 집단 내에서 개인상담을 실시하듯 하고 있다. 만약 집단에 참석한 집단원들의 문제가 순전히 대상 없는 불안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주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은 가능한 한 개인상담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상담은 인간관계에 관한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작업의 초점이 개인상담에서와는 다른 관계적인 것에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Holmes & Kivlighan, 2000).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현실이고 그 속에는 다양한 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내담자가 그러한 역동적인 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에 우선하는 목표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실역동 집단상담에서는 집단원의 내면적 갈등이나 불안을 다루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생명체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당당할 수 있는 태도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주변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못된다. 관계 속에서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당하면서도 동시에 더 붙어 살아가는 태도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현실역동 집단상담에서는 주어진 현실에서 최상의 공존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사실, 각자는 그때그때 할 소리를 하지 못해서 치이고 억울한 나머지 일그러진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자기를 지킬 뿐더러 동시에 남이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을 방지해 그를 돕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존하면서 당당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할 일은 제쳐두고 자신의 목소리만 낸다면 그것은 공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즉, 자기의 요구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위치가 어떤 것이고, 또 과연 자신이 그 자리에 얼마나 합당하게 처신해왔는가를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역동 집단상담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적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그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각각의 역할 또는 도리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수행하도록 돕는다.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

상담과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상담을 받으려 온 내담자가 현실에 적용해 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상담 효과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가치간의 함수관계도 그러하지만, 사실 내담자가 지닌 갈등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타인들과의 관점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집단상담에서는 집단원이 미처 자각하지 못한 것을 상담자를 비롯한 다른 많은 집단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적용적 태도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 대한 기준 점은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일 수록 상담은 보다 효율적이 된다. 그렇게 할 때 집단원들이 무엇 때문에 관계에서 갈등이 야기되었고,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나아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집단에서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집단이 사회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떤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문화의 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다. 최근에 집단주의·개인주의 개념에 근거한 비교가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조망되었다며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동양사회를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그리고 서양사회를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여전히 일반적이고 또 유용하다(한규석, 1997).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별하는 출발점은 사회의 기본단위를 집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개인으로 보느냐하는 것이다(Hui & Triandis, 1980). 즉, 집단주의의 특징은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 파악하고, 집단의 결속에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애착을 갖는다. 반면 개인주의의 특징은 자아를 집단과는 독립된 별개의 단위로 인식하고,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며, 정서적 거리감을 존중한다. 이러한 분류아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인간간의 관계지향적 문화를 낳게 되어 기본 덕목으로서 '인정(compassion)'을 발달시킨 반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권리지향적 문화를 낳

아 '정의(justice)'를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로 등장시켰다(이수원, 1995).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두 덕목이 서로 다른 잣대로 채택되면서 갈등상황을 초래하는 주요 원천이 되어가고 있다. 서양사회에서는 인정을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의를 공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는 반면, 우리사회는 정의의 기본개념인 공정보다 인정을 우선시하는 풍토로서 그것을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으로까지 개념화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동양문화권과 서양문화권의 마찰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권 내에서도 각 개인의 가치에 따른 문화간의 갈등으로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 주요 가치로 집단주의 문화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 특징은 '나' 라는 개인의 삶보다 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로서의 삶에 그 무게를 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서구의 개인주의적 풍조가 유입되면서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 지향적 가치를 파벌조성이나 편견의 원천이라 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정에 관한 가치 대신 정의 또는 공정성이라는 덕목을 강조하였다. 사실, 정의나 공정성은 부조리나 불의를 제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사회에 이바지하는 면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정의라고 일컬어지는 공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인간관계를 삭막하게까지 몰고 간다면, 그것은 서양사회의 병리현상인 소외와 고독을 만연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병폐를 발생시키고 만다. 사회가 산업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인간관계는 불가피하게 사무적이고 의례적으로 되어갔다. 더구나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조

차 사이버 공간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순기능적인 전통적 가치 또는 문화를 되찾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황폐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니 관계를 다루는 상담이라는 전문영역에서 만큼은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의 정립을 주요 관건으로 삼아야 하리라 본다.

이제, 집단주의 또는 인정주의의 속성을 강하게 지닌 우리문화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과연 한국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교 또는 유학의 영향으로 인한 관계론적 인간관이다. 즉,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사회의 궁극적 구성단위를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라고 보며,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에 걸 맞는 역할인 도리를 사회행위의 규범적 단위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관계중심적인 가치가 두드러지며, 관계에서의 조화 및 질서에 대한 추구를 사회관계의 목표로 삼는다(민경환, 1997; 조근호, 1998).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나라는 개인의 삶보다 가족을 비롯한 여러 내집단(in-group)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로서의 삶에 무게를 둔다. 즉, 우리나라 사람은 혈육을 근간으로 하는 혈족 중심적 속성을 지녀 내집단의 요구에 무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기준도 서양에서 중시하는 능력보다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느냐하는 관계적 속성을 내포한 인격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기 때문에 동양사회에서는 '나' 를 부각시킨 삶보다 '우리' 속에서의 부분자로 사는 삶을, 그리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Miller & Bersoff, 1992).

관계지향적 인간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이미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인정을 비롯한 많은 정서를 발달시켰다는

것이다. 도리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관계 선상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따라 취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부담감 내지는 속박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기보다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체념에 뒤따르는 한(恨)이라는 독특한 정서와 수동적 운명관을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문화에는 자기중심적인 정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노, 좌절, 공포, 기쁨보다 타인중심적 정서인 동정심이나 수치심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최상진, 1993; Matsumoto, 1989).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면의식을 유독 많이 지니고 있다.

관계지향적 인간관과 타인중심적 정서발달 이외에 우리문화는 위계를 강조하는 서열지향적 특징도 또한 지니고 있다. Triandis(1998, 1996)는 문화에 대한 분석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 이외에 수직-수평이라는 차원을 추가했는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본다면 우리문화는 수직적 집단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사회는 사람이 위아래를 모를 경우 본데없이 자란 사람으로 취급하고 말 정도로 위계상의 서열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지도편달하거나 포용해주는 덕목을 지녀야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기꺼이 따르고 존중하는 몸짓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문화에서는 '어른'이라는 독특하고 함축적인 개념을 발달시켜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추적 인물로까지 부각시켰다. 여기에서 어른의 역할이란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훈육을 담당하는 스승으로서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어른이란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로서 존경의 대상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어른을 모시고 있는 것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경향이 짙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러한 세 가지는 우리문화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편의상 구분해 설명을 하긴 했어도 이 모두는 상호의존적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조화 즉,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관계중심적 가치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동안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희생을 강조하는 것으로 매도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대의 추세가 점점 각박해지는 이즈음에 이르러 그러한 관계중심적 가치나 전통은 재고찰을 요구하는 상당히 보배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서구문화의 장·단에 대한 검증 없이 그것을 흡수하기에 급급했던 자세를 지양하고 우리문화의 특성에 눈을 떠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특성과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담작업에 필히 반영되어야 하리라 본다.

현실역동 집단상담의 기본개념

우리 문화에 보다 적합한 집단상담 모형으로 현실역동 집단상담을 제안하고자 그것의 기본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에 앞서 현실역동 집단상담이 근거로 삼고 있는 현실역동 상담(장성숙, 2000)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에 의해 제시되었던 현실역동 상담에서의 인간관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필히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사회

성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균형 잡힌 내부세계의 확립과 아울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내면화해 실행하는 자라고 간주한다.

상담목표로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외의 현실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특히 강조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주체자로서 원만하게 적응을 이룩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내담자가 다른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하여 그가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돋우고, 나아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상담과정으로는, 태도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성, 정서, 행동 중의 어느 하나가 아니라 지(知)·정(情)·의(意) 모두가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 동안 대부분의 상담접근에서는 지나치게 정서를 강조하거나 또는 인지에 역점을 둔 나머지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의 작용에 대하여서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감정이 풀렸다해도 또는 이해가 수렴되었다 해도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어떤 힘의 작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의지의 기능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변화라는 힘든 작업을 이룩하기 위해 의지의 작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 특히 직면을 잘 활용하기를 요구한다.

상담의 진행방법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내담자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주력한다. 사실 내담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내담자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은 가능한 치부를 가리고 자기 식대로 각색하여 문제를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 내담자의 현 상태가 유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함으로써 문제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그 다음의 작업으로는 내담자의 가족관계 및 성장사를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그의 중심 역동을 이해한다.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이러한 탐색작업을 거친 후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목표 즉, 문제해결이나 보편적 기준의 내재화 등을 겨냥해 작업한다.

상담자의 역할로는, 치료적인 교정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자적인 스승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는 단지 문제를 밝혀주거나 또는 심정을 헤아려주는 이해차원의 상담자 역할을 넘어서서, 자애롭게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추상같은 질타로 내담자가 거둬나게끔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상담자는 지도편달을 해주는 엄부자모와 같은 어른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나아가 내담자의 당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타당한 방향제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역동 상담이론에 근거한 현실역동 집단상담을 정의하자면, 현실이란 내·외의 수많은 힘들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역동적 실체다. 이 속에서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고도의 균형을 요구하는 하나의 예술이라고까지 일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내재해 있는 현실에 눈을 뜨고, 그 속에서 깨어나야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작업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이룩되는데, 필자는 본인이 실시하는 이러한 취지의 집단상담을 현실역동 집단

상담이라고 이름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단상담 접근들은 개인상담 이론이 수립되고 난 이후, 그것의 응용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집단상담 자체에 대한 이론 정립은 사실상 미약했다. 그러나 집단이 작은 사회(social microcosm)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집단 내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병리를 묘사할 필요도 없이 기존의 대인관계 양상을 그대로 펼쳐기 시작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집단상담은 개인상담과 매우 다른 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집단상담의 이론 및 접근방식에 대한 시각은 달리 정립되어야 하리라 본다. 사실, 집단상담은 개인상담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과 풍부한 치료요인들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어 적용에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집단상담이 지닌 특성으로서의 치료요인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보다 대인관계 학습과 관찰학습이라고 여긴다. 우선 대인관계 학습을 설명하자면, 집단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왜곡을 표출하게 되고, 자신의 대인관계적 평가를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적 평가와 비교하는 합의적 검증(consensual validation)을 통해 관계왜곡을 수정할 수가 있다(Yalom, 1995).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러한 과정은 자기 모습을 검증 받고 직시하게 해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치료적 가치를 지닌다. 사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갈등은 그 계기가 대개의 경우 인간관계이다. 그리고, 그러한 계기에 쉽게 휘둘리는 성격형성도 취약한 모자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나아가 치료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신뢰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담은 시종일관 인간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집단상담은 바로 이러한 대인관계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병리적 태도의 노출→피드백을 통한 자기 모습 인식→변화에 대한 집단압력 의식→새로운 행동방식 시도→긍정적 강화를 통한 적응적 태도의 발달)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상담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상담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자리 매김 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에서는 본인 자신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관찰함으로써 상당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히려 타인의 문제를 관찰할 때는 비교적 저항이나 방어가 덜 일어나면서 논의되는 사안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의 수립이 가능하다. 사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누구나 지닌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다룰 때보다 자기와 유사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 많이 깨어난다.

이렇게 집단상담은 '집단' 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개인상담에서 취득할 수 없는 특유의 학습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을 극대화시키려면 집단이 그 사회의 가치를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수록 좋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온갖 것이 다 내재되어 있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다. 이 곳에는 수많은 관계를 내포한 특정 문화가 있는데, 그 동안 집단상담자들은 사회를 대표하는 집단 자체가 지닌 역동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 배후에 전제되는 문화적 변인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축소된 작은 사회로서의 집단이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집단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게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아무튼, 집단상담이 집단원의 적응적인 삶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집단상담의 문화는 그 사회의 전통이나 토양 및 정서에 대한 이해를 필히 수반해야 하리라 본다.

현실역동 집단상담자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시행해왔던 대부분의 상담접근들은 서구 문화권의 백인 중산층(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의 가치에 입각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문화권에서 복제하듯 직수입해 사용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히며 필자는 우리의 문화적 토양에 걸 맞는 상담모형으로 현실역동 상담을 제기했다(장성숙, 2000, 1999).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의 선호가치가 점점 수평적 개인주의로 변해간다고 한다(한규석·신수진, 1999).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드러다 보면 우리문화에는 여전히 수직적 집단주의의 가치가 깊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문화를 집단상담자가 어떻게 반영하면서 접근해야 집단원들의 사회적응을 최대로 도모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문화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서양에서의 다문화적 관점과는 다르다. 서양은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다원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어 집단에서 필히 소수 인종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상담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한다(Delucia, Coleman, & Jensen-Scott, 1992). 그러나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우리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특성의 관점에 입각해 집단원을 조

명시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없이 개인주의적인 가치 즉, 내적 욕구나 감정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서양인들의 상담관을 아무런 검증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흔히 접하는 부작용에 대한 예를 들면, 자기감정에 솔직하게끔 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둘 경우, 집단원은 바깥 사회에 나가서도 쉽게 자기주장을 펴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눈치 문화가 발달된 곳으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무언의 교감을 보다 차원 높은 의사소통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표현을 용감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사회에서는 곱게 여기지 않는다. 더구나 상대가 손위 사람일 경우, 자기상태를 그때그때 내비치는 것은 설사 그 내용이 타당하다할지라도 무례하게 보일 수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다소곳한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을 서양인들의 기준에 맞추어 의존적이지 않거나 또는 수동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독립-의존의 개념은 서구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문화에서는 이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주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처지에 있는 내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에게 조언을 청함으로써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우리문화에서는 사람의 됴됨이를 따지는데 있어 이러한 겸손을 독립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우리문화의 가치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역동 집단상담에서 상담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심어 주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가 우선한다는, 그리하여 사람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자세다. 여기에서 사람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맞추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충실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리하여 관계중심의 우리 문화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 갈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갈등하는 많은 문제들의 배후에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깔려있다. 이기심은 결국 상대에 대한 경시를 낳고, 이것은 마침내 자신을 고립시키고 만다는 연쇄적 순환관계를 인식하게 한다면, 관계를 소중히 하는 태도는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비인간화 물결에도 좋은 처방책이 되리라 본다.

둘째, 내담자의 이기적이거나 병리적 태도를 극복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직면기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집단상담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만약 집단원이 견딜 만한 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 병리적 속성이 심해 임상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일반 내담자 수준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직면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체면문화를 발달시켜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치심을 자극받게 되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면서도 신속한 태도변화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부끄러움 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것은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본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유일한 존재로서 그 덕분에 고급문화를 발달시켜왔다고도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는

집단원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의 분노가 다 풀려질 때까지 마냥 받아만 주기보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직면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그렇게 말하는 본인 자신은 얼마나 자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가하고 직면 차원에서 되물어 주면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그들은 고개를 숙이곤 한다.

셋째, 상담자라면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지도편달을 통해 키워주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자를 대등한 차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으로 여기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럴 경우 상담자는 그러한 기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부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바로 내담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적인 어른의 상을 엄부자모(嚴父慈母)로 보았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서 어른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상담자는 한 어른으로서 바로 그러한 엄부자모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역할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무랄 수 있는 준엄한 아버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어른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한다고 본다. 더구나 집단상담은 상반된 의견의 마찰로 걸잡을 수 없는 갈등이 고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수의 의견에 올바른 방안이 묻히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바람직한 집단의 행로를 위하여 지도자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 만약 상담자가 집단의 흐름을 방관하거나 잘못 인도할 경우 혼란이 야기됨은 물론 치명적인 상담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시종일관 어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내담자에게 합당한 방향을 제시해 내담자 자신이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상과 같은 집단상담자의 역할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상담자가 제안하는 방향 및 개입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현실역동 집단상담에서의 상담자는 보편적 가치의 확립과 폭넓은 사회적 상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집단상담자의 문화적 가치가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편협한 것일 때는 그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은 바로 집단상담에 참석한 집단원들이 해주게 된다. 즉, 집단원들은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 상담자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반영해 줌으로써 어떤 특정 내담자의 가치가 함부로 무시되는 것을 방지하는 평가 준거자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집단상담자뿐만 아니라 집단원에 의해 모색되는 가치 기준의 균형은 개인상담에서보다 다수가 모인 집단상담에서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다수의 눈과 입김은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변별하고 선정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상담자는 보다 우리 문화적 가치에 부합되는 보편적인 기준을 유연하게 구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실역동 집단상담의 실제

현실역동 집단상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

도록 한다. 어떤 부인은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아직도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 이 부인의 하소연은, 친정 오빠네 가족과 함께 놀러 갔다가 오빠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는데 오빠네 가족은 멀쩡한 반면, 이 부인의 가족들은 크게 다쳐 아이도 한 명 죽었다고 했다. 그 후 남편은 너무 진노한 나머지 처갓집 식구들과 대면을 안 하는 것은 물론 부인이 친정 식구들과 교류하는 것조차 차단시키고 있단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인은 너무나 힘들어졌고, 더 이상 남편의 태도에 견딜 수 없어 남편에게 반격할 궁리를 했다.

이 사례에 대하여 현실역동적 접근을 시도하는 상담자는, 남편의 상태가 정도를 넘어섰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보상문제는 깔끔하게 처리되었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그 부인의 대답은, 보험회사와의 문제가 발생해 아직도 그것이 미결상태라고 말하며, 그러지 않아도 친정 오빠가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전화를 하자 남편은 그까짓 돈을 받아서 뭐하겠느냐며 받는 즉시 찢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했다. 부인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하여 상담자는 “바로 그 미처리된 보상 문제가 남편을 광분하게까지 하는 주된 이유일 수가 있다. 그러니 당신은 남편에게 나도 힘들다며 따지기에 앞서 오빠에게 보상처리를 빨리 서둘러달라고 재촉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차라리 남이라면 자식을 잃고 아내가 그런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한 울분을 소송이라도 걸어 해소한다지만, 가해자가 다름 아닌 처남이니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보상처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몰랐다며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수궁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사례는, 어느 젊은 부인이 외아들이 있던 남편을 잃고 세 명의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근래에 시어머니를 모시느냐 마느냐에 대한 걱정거리에 머리가 다 아프다고 했다. 그동안 시부모는 시누이들과 생활해 왔었는데 얼마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근에는 시누이들도 다 시집을 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러나 외며느리인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겠지만, 남편도 없는 이 마당에 새삼스레 구속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도무지 내키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집단원들은 본래부터 사이도 썩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남편도 없는데 굳이 모실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권했다. 그러나 집단상담자인 우리들(본 필자와 다른 지도자)의 견해는 달랐다. 그 부인에게 우리가 일러준 말은, 걱정하는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또 주위사람들에게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강한 성격을 지녔다 하더라도 아들이 없으면 이미 날개 꺾인 노인에 불과하므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그 노인을 모실 경우 실보다 오히려 득이 많다고 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가 이 거친 세상을 살려면 수많은 세파를 겪게 마련인데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시어머니이고, 또 아이들에게 아버지 대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상징적 존재가 바로 애들의 할머니인 시어머니이며, 나아가 당신이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 하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된다고 간곡하게 설득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심호흡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꾸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하여 논의를 하자면, 현실역

동 접근에는 기존의 집단상담과는 다른 차이점들이 내재해 있다. 첫째, 집단원이 내놓는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 차원에서만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제반 요인들을 참작한 전체적 맥락 속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제반 요인을 고려한 문제파악이라는 것은 풍부한 사회적 상식과 폭 넓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상담자의 역량과 비례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부인의 경우, 만약 그 부인이 단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남편의 울분에 대하여 가혹하다고 따진다면 그들의 관계는 소원해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치사스럽게 비쳐질 우려가 있어 남편은 분통터지는 이유를 부인에게조차 명확하게 밝히기가 상황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담은 감상적이거나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갈등하는 문제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집단상담자는 집단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도자로서 방향제시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에게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상담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주입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토록 부정적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상담자가 여차피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가 보다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되도록 그를 이끌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Patterson, 1989). 이 때 상담자의 가치 기준이 그 사회의

문화 및 정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보다 보편적이라면 내담자의 적응을 도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지닌 두 번째 사례에 대하여 대부분의 집단원들은 남편도 없는데 굳이 모실 필요가 있는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수의 의견이라 하여 그냥 따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이기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문화의 진정한 가치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상담자는 기꺼이 지도자로서 어른답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결단력도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집단상담이 우리문화를 반영하는 작은 사회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게 되리라 본다.

셋째, 현실역동 집단상담자는 집단원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참고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집단원이 그 방향을 수용하도록 상담자가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설득, 자극, 직면, 예시 등을 통해 집단원이 깨어나고, 그리하여 보다 적응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본다. 많은 기존의 상담자들은 상담이 내담자가 올바르게 느끼고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데(Corey, 1996),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내담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어떤 방안을 제시했으면, 그것의 수용 여부는 내담자의 선택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합당하고 왜 그에게 필요한지를 충분히 납득시키는 것은 방향제시를 한 상담자가 취해야 할 몫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방향 또는 방안이 내담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에게 중압감을 주어서는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효과적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표면상 개별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시켜야 하는 고도의 설득력이 상담자에게는 필요하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그 부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부각시켜서라기보다 무엇보다 자기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상담자 말에 그나마 내담자의 마음이 움직인 덕분이라고 본다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빈번히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혼수문제에 관한 갈등, 시누이와 새댁의 관계, 이혼문제, 근친상간으로 인한 번민, 또는 노부모 모시기 등의 문제를 과연 현실역동 집단상담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집단상담에서 다룰 때 집단상담자가 우리문화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나 파장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상담은 우리의 전통이나 토양에 맞게 진행되어야지 자칫하면 내담자를 문화마찰의 희생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 다시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이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사회이지 저 멀리 있는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① 혼수문제로 갈등을 겪는 어떤 부인의 하소연은, 비용이 많이 드는 혼수는 허례허식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출한 혼수에 불만을 터트리는 시어머니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 필자의 태도는, 자식의 혼례 때 친인척에게 그동안 빚진 것을 갚고자 하는 것이 나눔에 대한 우리의 풍습이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보란 듯이 키운 공로에 대

하여 보상받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심정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자고 했다.

② 시누이의 불공정한 태도에 불편해 하는 어느 새댁의 푸념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낫다’는 말이 있듯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겨 버리면 편하다고 했다. 아직도 가부장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시누이는 부모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푸념하는 새댁도 친정에 가서는 자기의 울케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인색한 시누이로 돌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③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만 충실한 나머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여념이 없어 아이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은 뒷전이냐고 도리어 추궁했다. 정녕 자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모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견디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한 걸음 양보하는 가족주의적 태도를 되찾곤 한다.

④ 근친상간에 대한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우리사회에 의외로 많은데 이것은 비좁은 가옥구조 또는 친인척 손님들에 대하여 환대하는 미풍양속에서 빚어진 듯하다. 어렸을 때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던 내담자의 이런 상처에 대하여 본 상담자는 그것을 풀어내고자 계속 표현시키기보다 가능하다면 깊숙이 묻어 버리도록 유도한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부모형제 및 친인척간의 교류가 평생에 걸쳐 수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가 선명하게 의식되거나 정리한다는 차원에

서 가해자와 이야기를 할 경우 속은 풀릴지라도 사실상 관계는 끊어지게 마련이다.

⑤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요즈음 부쩍 많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우리 사회는 인간관계의 근원을 효(孝)로 삼는데 그것이 허물어지면 여타의 관계는 취약해지게 마련이라고 간곡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유대관계로서의 의무나 책임이기 이전에 그 어떤 이유로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임을 납득시키고자 애쓴다. 특히, 우리문화는 관계적 가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효(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개인주의가 강조되면서부터 이것이 경시되고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효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중추적 개념으로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 상담자가 실시하는 현실역동 집단상담은 기존의 집단상담 접근들이 지닌 패러다임과는 상이하다. 이렇게 상담의 패러다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실역동 집단상담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미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것은 집단원의 사회적응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고자 우리문화의 주요 특색인 관계론적 인간관의 제반 가치를 가능한 한 현실역동 집단상담에서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권경인(2001). 집단상담활동의 유형화 연구: 치료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경환(1997). 성격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209-249. 성원사.
- 이수원(1995). 한국 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188-195, 서울: 한국심리학회
- 장성숙(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9-33.
- 장성숙(2000).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조근호(1995). 문화와 인지. 한국심리학회 동계 세미나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121-177.
- 조근호(1998). 유학심리학 서울: 나남출판사.
- 최상진(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10월 서울대, 3-22.
- 한규석(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 비교 연구. 심리학에서의 비교 문화연구. 87-172. 성원사.
- 한규석·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권 2호, 293-310.
- Corey, G.(1996).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 DeLucia, J. L., Coleman, V. D., & Jensen-Scott, R, L.(1992). Cultural diversity in group counseling.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17(4), 194-195.
- Holmes, S. E., & Kivlighan, D. M., Jr.(2000). Comparison of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and individual treatment proc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78-484.
- Hui, C. H., & Triandis, H. C.(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Matsumoto, D.(1989). Cultur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mo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92-105.
- Miller, J. M. & Brsoff, D. M.(1992). Culture and moral judgement: How Are Complicate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541-554.
- Patterson, C. H.(1989). Valu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unseling and Values*, 33, 164-176.
- Sleek, S.(1995). Group therapy: Topping the power of teamwork, *The APA Monitor*. 26(7), 1, 38-39.
- Triandis, H. C. & Gelfand, M. J.(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s. *American Psychologist*, 51, 107-415.

Reality Dynamic Group Counseling: From a Standpoint of Korean Culture

Sung-Sook Chang

Dep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re are various interactional and interpersonal nature for 'the group by itself' in group counseling. It seems effective to focus on such nature rather than on intra-psychic components because of observational learning and interpersonal learning which are powerful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counseling. Korean culture belongs to vertical collectivism and develops altruism for others and the concept of rank on the ground of the value view of the society. The aim of Reality Dynamic Group Counseling is to help people depend their opinion and adjust themselves to society. To accomplish such aim, the counselor for Reality Dynamic Group Counseling makes people recognize that people are so valuable, know how to use the technique of confrontation, and take role of a wise man. The difference between Reality Dynamic Group Counseling and other several group counseling is that Reality Dynamic approach is held realistically, the solution for each problem is offered as much as possible, and persuasion can be given if necessary.

Key Words : Reality Dynamic group counseling